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
등학교
예상
조감도.

탄자니아에 ‘보리가람’ 설립된다

(농업기술학교)

아름다운동행, 명칭 확정
설계 전반 마무리 단계
2015년 말 완공 예정

종단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하고 있는 농업기술학교의 명칭이 ‘보리가람’으로 확정됐다. 깨달음의 공간이 되어 학교 내의 가르침이 학생들과 탄자니아 사회 전체의 깨달음과 빈곤 퇴치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일 “현재 아프리카 탄자

니아 학교 건립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되고 2015년 말 완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9월 탄자니아에서 기공식을 가진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현지 NGO 법인 신청, 학교설립 허가, 토지 소유권 등록 등 행정 처리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독서 장려 지원 프로젝트 ‘토토의꿈’, 급식 지원 사업 ‘하피콘’, 우물지원을 통한 식수개선 등 지역개발사업도 활발히 펼쳐 왔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설계가 확정되고 학교 건립 공

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6년부터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술학교는 총 4만평의 학교부지에 학년 당 60명씩 총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6개의 교실과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양호실, 도서관, 식당, 강당, 매점, 공동 화장실, 경비실, 지부 사무실, 운동장이 지어질 계획이다. 또 전교생 기숙 생활을 위해 남녀 기숙사 각각 1동씩과 교사 숙소가 마련되고,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대규모의 원예실습장과 가축실습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농업 기술을 주요 교과목으로 하여 전교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행 사무총장 자승스님은 “많은 스님들과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여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 건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벼돌 한 장(1만원), 책걸상 세트(5만원), 땅 한 평(10만원), 식수대(30만원), 컴퓨터 한 대(100만원), 교실 한 동(1000만원), 법당 건립(5000만원) 후원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7대 종교 자살예방에 앞장선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계가 정부와 손잡고 우리사회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광에서 열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9월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KCRP는 정부와 함께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상

호 협력하기로 했다. 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은 “KCRP가 정부와 함께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 것을 유익하게 생각한다. 자살예방은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모두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종교계도 자살예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협약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희종 가톨릭 대주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KCRP 회장단과 문형표 장관은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가졌다. 또 7대 종교계는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며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등 ‘생명사랑 지키기’ 7대 선언을 발표하며,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전통사찰 방법에 관심 가져 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강신명 청정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취임을 축하드리며 임기 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축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전통사찰 도난과 화재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인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과 국회 정각회 의원들의 좋은 말씀이 청장 취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 도난 및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가족이 모두 봉은사 신도이고 원학스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면서 “함께 온 김치원 정보국장도 불자로 임명받고 첫 출근해서 총무원장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 8월27일 임명된 강신명 정장은 경찰대학 2기 출신으로

경북지방청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맡아 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정만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김치원 경찰청 정보국장, 설광섭 총로경찰서장 등이 배석했다. **허정철 기자** hpc@ibulgyo.com

“철도노조 무죄 원심파기 결정 유감”

조계종 노동위 성명

최근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는 지난 8월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기본권 확장을 위해 대법원이 2011년 내린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의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위 불법 파업을 양산해 노사 현장을 과거처럼 파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겨우 보장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통일불교기획단 좌담회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진관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러시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주변 4대 강국의 정체성과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전문가 초청 좌담회의 첫 번째로 마련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정숙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유라시아주의의

현실적 의미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정체성을 분석했다. 한정숙 교수는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문명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아시아적 요소의 의미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주도했다”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한 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21세기 들어와 성과로 거두고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이같은 현실정치적 노력에서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생명, 평화, 나눔, 사랑’

제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개최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가 우리사회 종교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문화축제 마당을 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생명, 평화, 나눔, 사랑’을 주제로 오는 13일 오후1시부터 9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번 축제는 7대 종교의 문화를 체험하는 ‘너와 나의 축제’, 종교문화사 진전, 희망의 염서 사진전, 7대 종교 공연으로 구성된 ‘우리의 축제’, ‘희망의 울림 희망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종교별 신도를 비롯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이연꽃 만들기, 단청그리기 등을 비롯해 목구멍 만들기, 나의 경전 만들

기, 한복 바르게 입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오후6시부터 열리는 희망 콘서트에는 각 종단 대표와 문화체육부 장관, 소외계층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여성성직자 모임 ‘삼사회’, 레인보우다문화합창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종지협은 “이번 축제가 생명, 사랑, 나눔,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종교의 사회 공헌과 긍정적인 역할을 널리 알리며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慧菴大宗師 정기문도회의 및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개최

혜암대종사 정기문도회의 및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문도회 스님들과 진흥회 이사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문도회의 : 불기2558(2014)년 9월 13일(토) 오후 2시

⇒ 이사회의 : 불기2558(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2시 30분

⇒ 장 소 : 해인사 원당암 (055)932-7308

慧菴大宗師 문도회 회장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 법 합 장

효과적인 마케팅!

저렴한 비용!

e마케팅의 새로운 강자.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불교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광고 ·
홍보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십시오.

인터넷 광고
02)730-4490

불교신문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현재 국회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준이 현재 이수과목제도에서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신뢰성 있는 학습기관

(사)대한불교청년회와 공식업무협약을 맺은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이 여러분의 도반이 되어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과목강

2012년과 2013년 2년여 동안 보아카데미를 통하여 80여분의 스님과 불자들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2급을 취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학습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구분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보육교사 복수과정	3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
전문대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14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1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타전문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보육교사 복수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타전문전문학사 취득

50%할인의 파격적인 수강료

(사)대한불교청년회와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은 여러 불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전과목 50%할인 수강료를 채택하였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자격강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셨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하시면 불교복지관, 공부방/방과후교실, 여성회관(부녀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분야, 자원봉사센터와 불교복지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금단체,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기업사회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시면 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02)738-9117



중앙원격평생교육원 1577-0792